

빈 체제의 성립

[★빈 회의와 빈 체제]

01. 빈 회의(1814. 9월 ~ 1815. 6월)

-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1773 ~ 1859) 주도
-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프랑스 등 5개국 중심
-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질서 협의
: 회의는 출춘다. 그러나 진전은 없다.
-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결정



(빈 회의의 풍자화)

02. 빈 체제 특징과 유지 노력

- 정통성의 원칙, 복고주의
: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탄압
- 신성 동맹(1815)
: 알렉산드르 1세(재위 1801 ~ 1825) 주도
: 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
- 4국 동맹(오스트리아·러시아·프로이센·영국, 1815)
- 5국 동맹(4국 동맹 + 프랑스, 1818)

▣ 부르센샤프트(1815. 6월)

나폴레옹 군과의 전쟁에 의용병으로 참가했다가 돌아온 대학생들이 예나 대학에서 결성한 학생 동맹으로, '젊은이들의 모임'을 뜻한다. 명예·자유·조국을 기치로 내걸고 모든 학생의 단결을 지향하였으며, 각 대학으로 퍼져 나갔다.

[★빈 체제에 대한 저항]

01. 자유주의 운동

독일	• <u>학생 조합 부르센샤프트(Burschenschaft)</u> 결성(1815)
이탈리아	• <u>카르보나리단(1806 ~)</u> , 청년 이탈리아 당(마치니 주도, 1831)의 혁명 운동
러시아	• <u>데카브리스트(Dekabrist)의 난(1825)</u> : 12월의 당원,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 → 농노 해방,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 등 주장 : <u>니콜라이 1세</u> (재위 1825 ~ 1855)의 <u>진압</u>

02. 민족주의 운동

그리스	• 독립 전쟁(↔ 오스만 제국, 1821 ~ 1829) • <u>영국과 프랑스 및 러시아 정부의 지원</u> , 낭만주의 사상가 등 지식인들의 지지 획득
라틴 아메리카	• 아이티 공화국 수립(from 프랑스, 1804) : 최초 독립, '검은 스파르타쿠스' 투생 루베르튀르(1743 ~ 1803) 주도 • <u>미국의 먼로 선언(1823)</u> :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원칙,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 천명 :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지지 • <u>에스파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선언</u> • 크리오요(타틴아메리카에서 정착하거나 태어난 에스파냐인)의 활약 : 시몬 볼리바르(해방자, 1783 ~ 1830), 산마르틴(보호자, 1778 ~ 1850)



빈 조약(1815. 6월)

-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 프로이센은 작센 지방 영토 5분의 3을 차지하며,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포젠 대공국), 단치히, 라인란트 등지를 얻는다.
- 옛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을 정리하여 38개의 영방 국가를 모아 독일 연방을 창설한다. 연방의 의장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맡는다.

빈 회의를 주도한 메테르니히는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메테르니히의 정통·복고주의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영토 문제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나폴레옹 타도에 공헌한 정도를 감안하고, 한쪽에서 양보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대가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프랑스, 에스파냐, 나폴리, 포르투갈 등에는 혁명 전의 왕실이 복귀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를 포기하는 대신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획득하였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대부분을 획득하여 폴란드 왕국을 세우고 러시아 황제가 그 왕위를 겸하였다. 독일 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38개국과 4개의 자유 도시로 구성된 독일 연방이 성립하였다.

먼로 선언(1823)

유럽 여러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나 속령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간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럴 만하다고 판단하여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하여 유럽 열강이 이를 억압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 운명을 지배하려고 간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개념 Check

- ① 나폴레옹 몰락 후 유럽의 질서를 수습하기 위해 ()의 주도로 ()가 열렸다.
- ② 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 동맹과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의 4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 ③ 1829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는 빈 체제에 저항하는 독립 운동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였다.
- ④ 1825년 러시아의 자유주의 운동으로 '12월 당원'이 중심이 된 ()의 봉기가 일어나 입헌 군주제를 요구하였다.
- ⑤ 에스파냐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운동을 미국은 ()을 통해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였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오스만의 압제에 짓눌려온 우리 국민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멍에를 깨부수기로 결의하고 국민 의회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한다. 4세기 동안 튀르크인들은 이성과 정의를 짓밟았고 우리는 분연히 무기를 들었다. 유럽 크리스티교도와 동등한 존재로서 문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혁명에 나섰다.
……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도서 지역의 주민들은 혁명의 진전에 필수적인 헌법 체제를 마련할 준비를 하였다.

- ① 불가리아가 주도하였다.
- ②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
- ③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 ④ 제1차 발칸 전쟁의 결과로 일어났다.
- ⑤ 청년 튀르크당의 무장 봉기에 자극 받았다.

02

(가)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제○○호	유럽사 신문	○○○○년 ○○월 ○○일
도전받는 (가) 체제, 그 운명은?		
독일 대학생들, 자유를 외치다! 학생 조합(부르센사프트)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가) 체제를 주도한 오스트리아 제상은 독일 군주들에게 학생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였다.	유럽 지식인들, 그리스의 자유를 노래하다!  그리스 독립을 지원한 영국 시인 바이런	

- ① 삼국 협상과 대립하였다.
- ② 전체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었다.
- ③ 신성 동맹으로 결속이 강화되었다.
- ④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지원하였다.
- 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으로 붕괴되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7월 혁명(1830. 7월 27일)]

01. 배경

- 빈 체제, 부르봉 왕조 부활, 루이 18세(재위 1815 ~ 1824)
- 샤를 10세(재위 1824 ~ 1830)의 보수적 전제 정치
: 7월 칙령(의회 해산, 선거권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 억압, 1830)

02. 전개

- 파리 시민(부르주아)의 봉기
: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 1797 ~ 1877)의 지도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03. 결과

- 샤를 10세 추방 ⇨ 부르봉 왕조 붕괴 ⇨ 루이 필리프(Louis-Philippe)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
: 루이 필리프 1세(재위 1830 ~ 1848), 입헌 군주정 수립(7월 왕정)

04. 영향

- 벨기에 독립(from 네덜란드 연합 왕국, 1831), 폴란드 독립 운동
- 청년 이탈리아당 결성(마치니, 1831),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1832)

[★2월 혁명(1848. 2월 22일)]

01. 배경

- 7월 왕정의 보수화(친부르주아 정책)
: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선거권 부여
- 1830년대 산업화로 사회주의 확산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성장

02. 전개

-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 주도
: 기존 내각의 사임,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



〈호레이스 베르네, 수플로가(파리)의 시가전〉

03. 결과

- 루이 필리프 1세 추방 ⇨ 제2 공화정 수립 ⇨ 루이 나폴레옹(1808 ~ 1873)을 대통령으로 선출

04. 영향

-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 실각과 영국 망명 → 빈 체제 붕괴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의 활성화 → 대(大)청원 시위(런던, 1848)
- 독일 지역의 통일 문제와 헌법 제정 협의를 위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소집(1848 ~ 1849)
-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독립 운동,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 고조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 임시 정부가 프랑스 시민에게 내린 포고문

반동적인 과두 정부는 파리 민중의 영웅적인 행위로 물러났다. …… 임시 정부는 공화정을 바란다. …… 이제부터 정부는 모든 계급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인민의 통일체이며,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이다. 원리로 말하자면 ‘자유, 평등, 우애’ 이고 표어로는 ‘민중’ 이다. 여기에 프랑스가 의무감을 가지고 힘써 지키고 자 하는 민주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2 제정(1852 ~ 1870)]

01. 루이 나폴레옹의 집권 연장 쿠데타(1851. 12. 2)

- 의회 해산
-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 표결 ⇨ 10년 임기의 절대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
- 국민 투표로 제정 부활 승인(1852. 11. 21) ⇨ 황제 즉위(1852. 12. 2)

“어디선가, 헤겔은 세계사적으로 몹시 중요한 사건과 인물은 두 번 씩 나타난다고 썼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야 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에는 희극으로 나타난다고.”

“마침내 황제의 망토가 보나파르트 어깨에 걸쳐지는 순간, 나폴레옹(나폴레옹 1세)의 동상은 방돔 기념주(Colonne Vendôme) 꼭대기에서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나는 이 책의 마지막에 썼었다. 그것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 칼 마르크스(1818 ~ 1883),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02. 나폴레옹 3세(재위 1852 ~ 1870)의 정책

- 무역 장벽 철폐, 적극적인 산업화 추진
- 대외 팽창 정책
- 크림 전쟁(1853 ~ 1856)
- 제2차 아편 전쟁(1856 ~ 1860)
- 프롱비에르 협정(~ 사르데냐 왕국, 1858)
- 이탈리아 통일 전쟁(⇨ 오스트리아, 1859 ~ 1860)
- 인도차이나 반도 점령(1862), 병인양요(1866), 수에즈 운하 건설(레쎬스, 1869)
- 멕시코에 군사 개입(페르디난트 막시밀리안 초빙, 군주정 수립, 1863)
- 프로이센 독립 전쟁(1870) 패배



〈나폴레옹 3세〉

[파리 코뮌(1871. 3 ~ 5월)]

01. 수립

- 프로이센 군대의 파리 포위 ⇨ 나폴레옹 3세의 몰락
- 노동자, 사회주의자 중심의 혁명적 자치 정부 수립 → 파리 코뮌(Paris Commune) 선언

02. 붕괴

-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임시 정부의 제3 공화정 수립 ⇨ 파리 코뮌 무력 진압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자유주의 개혁]

01. 특징

- 의회 주도, 점진적으로 추진

02. 종교적 차별 폐지

- 심사법 폐지(1828)
: 비국교도에게 공직 허용
- 가톨릭 해방법 제정(1829)
: 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 철폐

03. 정치 개혁

- 선거법 개정 전 귀족과 젠트리(gentry)만 선거권 행사
- 선거법 개정

▣ 부패선거구

산업 혁명 당시 인구 이동으로 유권자의 수가 크게 줄었거나, 아예 지역 내 유권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선출하던 선거구이다.

연도	개정 내용
제1차(1832)	• 부패 선거구 폐지, 산업자본가와 중산층에게 참정권 부여, 노동자들의 선거권 배제
제2차(1867)	• 도시 노동자, 소시민에게 참정권 부여
제3차(1884)	• 소작인, 농업 노동자, 광산 노동자 참정권 부여, 비밀 투표제 확립
제4차(1918)	• 남자 보통 선거권(만 21세 이상), 여자 제한 선거권(만 30세 이상)
제5차(1928)	• 남녀평등 보통 선거권(만 21세 이상)

- 차티스트 운동(Chartism, 1838 ~ 1848)

우리는 자유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인의 특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인 남자에게 의원 선거권을 부여할 것, 앞으로 있을 모든 의원 선거를 비밀 선거로 할 것, 그렇게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1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피선거권자의 모든 재산 자격을 철폐할 것, 의원의 봉직 기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 『인민 헌장(People's Charter)』, 1838

04. 자유주의 경제 개혁

- 곡물법 폐지(1846)

▣ 곡물법(1815)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지주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외국산 밀을 비롯한 그 밖의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며 국내 식료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여러 법률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이렇게 커다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은 이러한 모든 법률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폐기를 위해 노력을 쏟을 것을 굳게 맹세한다.

- 『반곡물법 동맹 창립 결의문』, 1838

- 항해법 폐지(1651 ~ 1849)

개념 Check

- ① 프랑스에서는 ()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 1세의 7월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제2)이 수립되었다.
- ②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로 시작된 제2 제정은 ()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붕괴되었다.
- ③ 프로이센 군대의 파리 포위 이후 노동자, 사회주의자 중심의 자치 정부인 ()이 수립되었다.
- ④ 영국 노동자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며 ()을 발표하였다.
- ⑤ 영국은 곡물법을 폐지하고 이후 항해법도 폐지하는 등 개혁을 통해 ()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왕정복고와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에 **(가)**은(는) 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 후 적극적인 대외 팽창에 나서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하였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안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 팽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림은 막시밀리안이 멕시코 정부군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모습을 화가 마네가 화폭에 담은 것이다.

- 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② 빈 회의를 주도하였다.
- ③ 파리 코뮌을 진압하였다.
- ④ 7월 혁명으로 즉위하였다.
- ⑤ 대륙 봉쇄령을 공포하였다.

02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가) 프랑스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하자,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하였다. 그는 영국과의 교역과 통신을 금지하고, 영국이나 그 식민지에서 온 배는 유럽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칙령을 공포하였다.

(나) 샤를 10세는 자유주의를 탄압하기 위하여 의회 해산 및 선거권 제한, 언론 검열을 규정한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반발한 자유주의자들과 파리 시민이 봉기하여 국왕을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새 국왕으로 추대하였다.

- ① 미국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② 영국에서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③ 러시아에서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일어났다.
- ④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 ⑤ 이탈리아에서 가리발디의 의용군이 시칠리아를 점령하였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민 국가 발전

[★이탈리아인 통일]

01. 통일 전 상황

- 나폴리 왕국, 교황령, 사르데냐 왕국(1720 ~) 등으로 분열
- 북부 지역(롬바르드 · 베네치아)
: 오스트리아의 간섭과 지배
- 나폴레옹의 침공을 계기로 민족의식 고조
-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
: 마치니와 가리발디 등이 민족 통일 운동 전개 → 실패



02. 통일 과정

- 사르데냐 왕국의 주도
- 재상 카보우르(Conte di Cavou, 1810 ~ 1861)의 정책
: 산업 장려, 군대 개편(1852 ~)
- 프롱비에르 협정(카보우르 ~ 나폴레옹 3세, 1858) 등 치밀한 외교 정책

01.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은 사르데냐가 도발하고 이 전쟁으로 인한 국제 관계와 전쟁의 국지화 노력은 주로 프랑스가 담당한다.
02. 전후 이탈리아를 다음과 같은 4개의 정치 단위로 구성한다.
 - i. 사르데냐,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파르마, 모데나 등으로 구성되는 북부 이탈리아 왕국
 - ii. 토스카나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이탈리아 왕국
 - iii. 로마와 그 주변지역인 라치오 지방으로 축소된 교황령.
 - iv.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양 시칠리아 왕국.
03. 이들 4개의 정치 단위는 연방으로 구성되며 교황이 그 의장이 되나 실제로는 사르데냐가 지배한다.
04. 프랑스는 사르데냐 영토인 사보이를 합병한다.
05. 엠마누엘 국왕의 장녀인 15세의 클로틸드 공주는 나폴레옹 3세의 조카인 36세의 제롬 공과 결혼한다.
.....

- 나폴레옹 3세의 지원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1859)에서 승리
: 중 · 북부 이탈리아 병합
: 솔페리노 전투 이후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 일방적으로 휴전(빌라프랑카 조약, 1859. 7월)
- 가리발디가 이끄는 붉은 의용대의 활동(1859 ~ 1860)
: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을 점령하고 사르데냐에 헌납
- 이탈리아 왕국 탄생(1861. 3월)
: 수도 피렌체
: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추대
- 프로이센 · 오스트리아 전쟁
: 베네치아 병합(1866)
- 프로이센 · 프랑스 전쟁
: 로마 교황령 점령(1870)



〈가리발디(1807 ~ 1882)〉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민 국가 발전

[★독일 지역의 통일]

01. 통일 전의 상황

- 35개의 영방국가와 4개의 자유시로 분열
- 빈 체제에 따라 독일 연방 창설(1815)

02. 통일의 움직임

- 관세 동맹 체결(1834)
 - : 프로이센 주도 → 경제적 통일 도모
 - : 오스트리아 제외
-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1848. 5월 ~ 1849. 6월)
 - : 파울로 교회에서 본회의 시작
 - : 헌법 제정 의회
 - : 소독일주의(프로이센, 1민족 1국가) ⇔ 대독일주의(오스트리아, 다민족 1국가)



03. 프로이센 중심의 무력 통일

- 빌헬름 1세, 프로이센 국왕 즉위(1861)
- 비스마르크(1815 ~ 1898) 주도
 - : 재상 취임과 의회 연설(1862)
 - : 철혈정책(Blut und Eisen Politik)으로 군비 증강



<비스마르크>

혁명을 마음에 품은 뻔뻔스러운 무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사명은 일반적인 목소리를 지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에 비해 군비가 너무 무겁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 지려는 정열을 가져야 합니다. …… 빈 회의 이래 우리의 국경은 정상적인 국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들은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1848년과 1849년의 중대한 오류였습니다. 문제는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비스마르크가 의회에서 행한 연설 중에서(1862)

- : 소독일주의적 통일과 무력에 의한 방해 세력 제거, 의회 기능 정지
-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승리(1864)
- 프로이센 · 오스트리아 전쟁(1866)
 - : 북독일 연방 결성(1867)
- 프로이센 · 프랑스 전쟁(1870)
 - : 알자스 · 로렌 획득(1870), 남독일 연방 결성
- 프로이센 국왕 빌헬름 1세의 독일 제국 황제 즉위(베르사유 궁전, 재위 1871 ~ 1888)

개념 Check

- ①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우르는 1858년 프랑스와 공수 동맹인 ()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② ()는 의용대를 이끌고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을 점령하여 이 지역을 사르데냐 국왕에게 헌납하였다.
- ③ 이탈리아 왕국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 승전한 것을 계기로 ()를 병합하였다.
- ④ 독일은 정치적 통일에 앞서 프로이센의 주도로 1834년 () 동맹을 체결하여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였다.
- ⑤ ()는 철혈 정책을 실시하여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추진하였다.

유형 CHECK!!

01

(기), (니)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수능]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한 사르데냐 왕국은 북부 이탈리아 일대를 지배하던 인접국 **(기)**에 맞서기 위해 **(니)**의 군사력을 빌리는 대가로 니스 등을 할양하였다. 그러나 솔페리노 전투 등에서 큰 병력 손실을 입은 **(니)**이(가) 사르데냐 왕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전하였다. 이에 사르데냐 왕국은 북부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때 사르데냐 왕국이 획득하지 못한 베네치아는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에도 속하지 못했다가, 프로이센이 속적 **(기)**에 승전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이탈리아 왕국에 편입되었다.

- ① 미국 혁명 당시 렉싱턴 전투에서 교전을 벌였다.
-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③ 입법 의회의 선전 포고 이후 혁명전쟁에서 충돌하였다.
- ④ 알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독일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 ⑤ 독일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국 협상에 가담하였다.

02

(기) 왕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그림은 가리발디와 **(기)**의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엠마누엘레) 2세의 만남을 묘사한 것이다. 이 만남 이후 가리발디는 자신이 점령한 시칠리아, 나폴리 등을 **(기)**의 국왕에게 바쳐 통일에 기여하였다.

- ① 샤를 10세가 의회를 해산하였다.
- ② 카보우르가 재상으로 활동하였다.
- ③ 비스마르크가 군비 확장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④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령을 선포하였다.
- ⑤ 메테르니히가 주도하여 빈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민 국가의 발전

[미국의 발전]

01. 독립 이후의 변화

- 미·영 전쟁(= 제2차 독립 전쟁, 1812 ~ 1814)
 - : 영국 상품의 수입 중단
 - : 북부를 중심으로 산업과 공업 발달
- **먼로 선언(주의) 발표(1823)**
- **서부 개척** 등으로 1840년대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



02. 남북 전쟁 전의 상황[『툼 아저씨의 오두막(1852)』]

- 북부와 남부 사이의 대립 격화

〈남북 경제 비교, 『더 타임스 세계사』(2016)〉

북부	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업, 산업 자본가, 공화당 ✓ 노예제 반대, 보호 무역, 연방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농장, 대지주, 민주당 ✓ 노예제 찬성, 자유 무역, 분권주의(지역주의)

03. 남북 전쟁(1861 ~ 1865)

1) 배경

- 공화당 후보 **링컨(1808 ~ 1865. 4월의 대통령 당선(16), 1860)**
- 남부 7주(뒤에 11주)의 연방 탈퇴
 - : 독자 헌법 제정, 대통령(제퍼슨 데이비스) 선출(1861. 2월)



〈링컨〉

2) 발발과 전개

- 섬터 요새(Fort Sumter)에 대한 남군의 공격으로 전쟁 발발(1861. 4월)
- 초기 남부 유리
-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1863. 7월)**
- 게티즈버그 전투(1863. 7월)
- 북부 승리(1865. 5월)



3) 전쟁 이후의 발전

- 통합된 국민 국가로 성장
- **대륙 횡단 철도의 개통(1869)**
 - : 지역 간의 통합과 산업화 촉진
-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이민자 수용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 자유가 선언된 노예들에게 ……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성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한다. 또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 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린다.

국민 국가의 발전

[러시아의 발전]

01. 러시아의 후진성

- 차르(tsar) 전제 정치와 농노제 지속
- 데카브리스트[Dekabrist, 12월(Dekabri) 당원]의 봉기(1825)
: 청년 장교, 대학생, 지식인 등이 비밀 결사 조직
: 전제 정치 타도, 입헌 군주제 시행 요구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02. 니콜라이 1세(재위 1825 ~ 1855)의 전제 정치

-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진압 이후 보수적 반동 정치 실시
- 크림 전쟁(⇔ 오스만·프랑스·영국·프로이센, 1853 ~ 1856) 패배
: 흑해 방면으로의 남하 정책 실패

03. 알렉산드르 2세(재위 1855 ~ 1881)의 개혁

- 지방 의회 설립, 국민 개병제 시행
- 농노 해방령 발표(1861) ⇨ 농민들의 토지 할당 청원(1863)

귀족은 농노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 …… 농민은 일정 기간 법에 따라 자유 경작인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것이다. 지주들은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면서 농민들에게 고정된 임대료를 받고 토지 경작권을 부여할 것이다. …… 동시에 농민에게 토지를 구매할 권리가 부여된다. …… 그리고 구매한 땅의 지주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농민의 신분이 된다.

농노 해방령으로 4천만 명 이상의 농노가 자유민이 되었으나, 토지를 무상으로 얻지는 못하였다. 해방된 농노들은 토지를 분배받은 대가로 지주에게 장기적으로 막대한 토지 상환금을 지불해야만 하였다. 또한 토지 소유권이 농민 개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미르)에 있었고, 농민이 부여받은 토지는 비옥하지 않았기에 어려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 제6차 러시아·튀르크 전쟁(1877 ~ 1878) 승리
: 산 스테파노 조약(Treaty of San Stefano 1878. 3월), 발칸 반도 내(內) 영향력 증대

04. 전제 정치에 대한 반발

- 근본적 변화가 없는 미온적 개혁에 반발
- 허무주의(Nihilism), 무정부주의(Anarchism) 대두
- 나로드니키의 브나로드(Vnarod) 운동 전개
: 정부의 탄압과 농민의 무관심으로 실패
- 인민의 의사(People's will, 과격 무정부주의자)의 알렉산드르 2세 암살(1881)
- 자유주의 운동 탄압 등 전제 정치 강화

▣ 브나로드 운동(1873 ~ 1875)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로, 지식인과 청년을 중심으로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운동이다.

05. 니콜라이 2세(재위 1894 ~ 1917)의 전제 정치

- 1870년대 산업 혁명 본격화
- 사회주의 확산
: 레닌(1870 ~ 1924) 주도 아래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 결성(1898)

